

# 전주시 거버넌스 자치분권혁신포럼 개최

### 거버넌스 성공사례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공유·지방정치 혁신 위한 과제·방안 모색

전주시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국내 거버넌스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들과 공유했다.

전주시와 (사)거버넌스센터는 5일 사회혁신전주에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거버넌스 지방정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1 전주시 거버넌스 자치분권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시는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거버넌스 지방정치 우수활동 발표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와 예술, 인권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선미촌을 무대로 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도로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낸 대표적인 거버넌스 성공사례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6월 열린 '2021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전주시와 (사)거버넌스센터는 5일 사회혁신전주에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거버넌스 지방정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1 전주시 거버넌스 자치분권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례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또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게적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부안군의 '부안의 미래게적 스토리'도 참석자들이

이어서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자치분권토론회에서는 이형용 (사)거버넌스센터 이사장과 임승민 명지대학교 교수가 각각 '거버넌스 분권자치 정치혁신', '지방자치 2.0과 전주시 공동체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형용 이사장은 "지역주권의 분권과 주민주권의 가치 없는 지역혁신은 없고, 지역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분권자치를 위

해 지역 주민들과 권한과 책무를 공유하고 로컬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지역혁신 사례들을 다양하게 창출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승민 교수는 "지방 도시들에게 보다 큰 자율적인 권한과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면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는 중앙정부-대도시로의 권한 이양 등도 가능하도록 다층적인 지방분권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도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임형택 익산시의원,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장우연 전주시 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도 이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선미촌의 변화는 시민단체, 여성단체, 행정, 유관기관 등이 모여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권'과 '도시의 흔적'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끌고 왔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도시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정치권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독서대전' 8일 개막

### 8~14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서 온·오프라인 개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에서 작가 강연과 공연, 전시, 학술토론, 독서체험 등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만난다.

전주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2021 전주독서대전'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3일간 열렸던 독서대전은 올해 1주일간으로 기간을 연장해 '전주독서대전 주간'으로 운영된다. 8일부터 10일까지 본행사 기간에는 전주한벽문화관 현장과 전주독서대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는 도서관 곳곳에서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근무직원은 사전 PCR 검사를 시행하고, 참여 인원은 사전에 신청된 49명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실내·외 발열체크, 출입자 관리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당신의 서재, 전주'를 주제로 열리는 전주독서대전은 개막식을 포함해 작가 강연과 공연, 전시, 공연, 학술토론, 독서체험 등 총 64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식은 8일 오후 2시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개막행사로 조선 후기 전주의 찬란한 유산인 완관분을 소재로 한 국악뮤지컬이 무대를 채운다.

초청작가 강연에는 △작가, 책을 말하다(정여울, 광재식, 강화길, 이은혜, 정은숙) △전주 올해의 책(문신, 백은유, 홍은전) △전주를 읽어드립니다(신정일, 방수미, 서

정환) △전주를 사랑한 작가(안도현, 고미숙, 안도) 등 1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작가와 독자들의 만남이 진행된다.

공연·전시로는 △판타스틱 풍선공연 △환상의 버블공연 △어린이 한자인형극 △고음볼가 △디지털북·오디오북 체험전시 △시민의 서재 △전주책이 피었습니다 △시민공포전 수상작 전시 △전주 올해의 책 필사 전시 등이 기획됐다. 특히 시민이 추천하는 도서와 문장, 단어를 전시하는 '시민의 서재'와 문학 작품에 지역의 예술가들이 자사·작곡한 작품을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이는 '고음볼가' 공연이 눈길을 끈다.

학술토론은 고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애와 시인을 돌아보는 전주 작고 세미나 등 3개 프로그램이, 경연으로는 전주 올해의 책과 도서관 상식 등을 퀴즈로 푸는 '온라인 가족 독서 토크쇼' 등 3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컬러링 엽서 체험, 나만의 독서대·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테마별 도서관 여행, 스니커즈 아트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배우는 수어 풍요와 장애 청소년 캠퍼스 오케스트라 공연 등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

2021 전주독서대전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 사전 예약 등은 전주독서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책의도시여행과 책읽는도시팀(063-230-1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 청년문화기획자 1기 모집

전주시가 지역 청년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주 청년문화기획자 1기' 5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1988년~2003년 출생자로서, 지난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를 뒀거나 전주시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면 된다. 다만, 해당지원 기간에 타 문화예술 인력양성사업 참여중이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제외된다.

청년문화기획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년간 작업 공간이 제공되며,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 구상이나 향후 활동에 필요한 개별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주어진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참가지원서 등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gjssong8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가입자 3800명 돌파

전주시가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이 시행 50일 만에 가입자 38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17일 본격 시행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가입자가 3883명으로 집계되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은 32곳의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정가의 20%를 포인트로 지급해 할인해주고 12개 시립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면 1권당 50포인트(원)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도서 구매 시 최소 2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온라인 서점과 대비해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시행한 지 50일이 지난 현재 가입자 수는 3883명을 기록했으며, 시민들이 포인트를 지급 받아 사용한 금액은 총 1372만794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



다. 이 기간 서점에서 '책쿵20'으로 발생한 도서 매출은 6863만19700원으로 집계됐으며, 서점 매출 상승에 도움이

/김윤상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